

# 불타는 아메리카, 단지 플로이드의 죽음 탓은 아니다

영상 속 부모들은 어려움을 겪는 눈치였다. 아들이 피부색 때문에 의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걸 말해줘야 하는데 난감하다고 했다. 아이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으며 설득할 수 있는, 그런 현명한 방법을 찾는 건 어려운 작업이었다. 뉴욕타임스의 Op-Docs팀(다큐멘터리 팀)이 2018년 공개한 '내 흑인 아들과의 대화(A Conversation With My Black Son)'에는 여러 명의 흑인 부모가 출연해 담담하게 자신과 아들 사이의 이야기를 풀어낸다. 제작진의 촬영 의도는 이랬다. "여러 세대 동안 미국의 흑인 부모들은 아들이 10대가 됐을 때 선택을 해야 했다. 미국에서 흑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말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말이다. 그들은 자식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단지 피부색 때문에 경찰의 표적이 될지도 모를 위험이 있다고 말해야 할지 모른다."

이런 걱정은 결코 유난스러운 일이 아니다. 지난 5월 25일 "숨을 못 쉬겠다"며 사망한 조지 플로이드에게서 자신을 발견했거나 혹은 자신의 자식을 투영한 사람들이 거리를 가득 메우고 있다는 게 증거다. 백인 경찰의 무릎은 수갑을 차 무저항 상태로 있던 플로이드의 머리를 8분 이상 압박했다. 녹초가 돼 점점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죽을 것 같다는 호소보다 더 강하게 작동한 건 경찰의 인종적 편견이었다. 영상 속 부모들이 갖고 있던 고민의 실사판이 미니애폴리스에서 벌어진 셈이다.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시작된 항의 시위는 뉴욕, 로스앤젤레스, 애틀랜타, 워싱턴DC 등 미 전역으로 확대됐다. 시위대 중 일부는 약탈과 방화, 파괴 행위를 벌이고 있지만 그들의 과격함은 이 큰 사건의 작은 파편일 뿐이다. 워싱턴포스트의 흑인 칼럼니스트 유진 로빈슨은 이렇게 쓰고 있다. "미니애폴리스에서 일어나고 있는 폭동을 막고 싶다면? 경찰과 인종차별적인 백인 자경단이 이제는



흑인 살해를 접어야 한다. 아프리카계 미국인을 쓰레기 취급하는 것을 그만하라. 나는 폭동과 파괴, 약탈이라는 폭력 행위를 비난한다. 하지만 이렇게 견줄 수 없을 정도로 감정이 치밀어오르는 그 심정은 이해한다."

### 1000명당 1명꼴 공권력에 희생되는 흑인

격양된 감정을 이해하는 까닭은 지긋지긋한 반복에 있다. 플로이드의 죽음 이전에도 무방비의 흑인이 희생되는 폭력은 되풀이됐다. 2020년만 봐도 당장 2월 미국 조지아주에서 백인의 총격에 비무장 흑인이 사망했다. 조깅을 하던 아흐마드 알버리(25)를 경찰 출신의 백인 아버지와 아들이 주격침입범으로 보고 총을 쏘았다. 처음에는 아들이 공격당해서 쏘았다고 했지만 5월 초 동영상 공개되면서 일방적인 총격이란 게 드러났다. 3월에는 캔터키주에 살던 응급의료요원 브레오나 테일러(26)가 집에서 자던 중에 경찰의 총격을 받고 사망

하는 일이 벌어졌다. 마약 사건을 수사한다며 경찰이 새벽에 들이닥쳤다가 생긴 일이었다. 이런 참혹한 사건이 헤드라인을 차지할 때마다 흑인들은 잠재적 위험이 일상에 도사리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미국에서 경찰과 흑인은 긴장 관계에 놓인다. 흑인은 별것 아닌 이유로 경찰의 심문을 받거나 신체검사를 받을 때가 있다. 편견에 근거한 인종 프로파일링 때문이다. 때로는 생명의 위협을 받거나 실제로 피해를 본다. 그런 경험들은 통계로 축적돼 있다. 미국 흑인들이 얼마나 공권력의 표적이 되는지를 알려면 2019년 8월 미국 국립과학원 회보(PNAS)가 발간한 보고서를 보면 된다. 2013~2018년 경찰 데이터를 활용했는데 결과를 요약하면 이랬다. "미국에서 흑인 남자들은 전 연령대에 걸쳐 경찰에 살해될 확률이 1000명당 1명꼴이다. 그리고 20세에서 35세 사이에 가장 위험하다." 흑인은 백인에 비해 경찰의 손에 살해될

확률이 2.5배 정도 높았다. 인디언, 알래스카 원주민, 라틴계, 아시아계 등 모든 집단과 비교해도 흑인 남성은 경찰의 손에 살해될 수 있는 위험이 가장 큰 집단이다.

25~29세 사이 흑인 남성은 10만명당 2.8~4.1명 비율로 살해됐다. 반면 백인은 같은 연령대 살해 확률이 10만명당 0.9~1.4명 정도다. 20~24세 전체 흑인 남성 사망자 중 1.6%는 경찰의 무력 사용 탓이다. 백인 남성의 경우는 고작 0.5% 정도가 경찰의 책임이다. PNAS의 자료는 흑인의 삶 속에서 공권력에 의한 위협의 불평등이 도사리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

조지 플로이드의 죽음에 항의하는 목소리가 인종적·구조적 차별 문제까지 건드리는데 지금 미국이 처한 상황과도 관련이 있다. 팬데믹과 경제위기는 백인보다는 유색인종, 특히 흑인들의 생활에 생채기를 냈다. 중국 우한에서 시작한 코로나19는 전 세

▲ 지난 6월 1일(현지시각) 미 워싱턴DC 백악관 인근에서 조지 플로이드의 죽음에 항의하는 시위대가 경찰 앞에 무릎 꿇어 보이며 대처하고 있다.

계 국경을 넘어 순식간에 세계로 퍼졌고 이 바이러스 앞에서는 국적과 인종, 계급 따위는 상관없을 거라고 우려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나온 결과를 보면 바이러스조차 평등하지 못했다.

지난 5월 27일 APM리서치랩이 발표한 데이터는 미국 내 흑인과 다른 인종 사이에 코로나19로 생기는 사망률 격차만 확인해 줄 뿐이다. 미국 전역에서 흑인은 인구 10만명당 54.6명이 코로나19로 사망했다. 라틴계(24.9명), 아시아계(24.3명), 백인(22.7명)보다 훨씬 높다. 미국 전체 흑인 1850명 중 1명이 코로나19로 사망했다. 미국 인구의 13%를 차지하는 흑인은 미국 내 코로나19 전체 사망자 중 25%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 정부 대신 민간이 모으는 인종 불평등 데이터

주 단위의 통계는 더욱 충격적이다. 캔자스주에서는 6%에 불과한 흑인이 이곳 코로나19 사망자 중 31%를 차지했다. 위스콘신주 역시 흑인 인구는 전체에서 6%에 불과하지만 코로나19 사망자는 28%였다. 흑인 인구 비중이 27%인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는 사망자 중 절반이 넘는 54%였다. 백인의 사망률과 비교하면 더욱 극적이다. 수도 워싱턴DC에서는 흑인과 백인의 사망률 격차가 6배에 달한다. 미시간주와 미주리주에서는 5배, 뉴욕과 일리노이, 루이지애나 등 코로나19의 주요 확산 지역에서도 3배 정도 흑백 간 사망률 차이가 있다. 게일 핀니 하원의원(텍사스주)은 "이런 결과는 의원들과 공무원들에게 행동이 필요하다는 걸 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와 관련한 인종적 불평등은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다. 이미 지난 4월에도 워싱턴포스트는 "흑인의 코로나19 사망률이 백인에 비해 2.4배 높다"고 전했다.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보통 그 출발점은 경제 격차에서 찾는다. 흑인은 의료보험 미가입자 비중이 높아서 평소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코로나19 고위험군에 속하는 기저질환자가 많다. 미 공중보건 분야 야전사령관 격인 제롬 애덤스(45) 공중보건 서비스단장은 자신을 예시로 삼았다. "저는 미국에서 어렵게 성장한 흑인을 대표합니다. 고혈압과 심장 질환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천식과 당뇨병전증 환자이기도 합니다. 흑인들은 건강에서 리스크가 큼니다."

감염이 많은 이유도 구조적인 격차에서 찾을 수 있다. 저임금 서비스업에서 일하는 사람 중 흑인 비율이 높다는 건 코로나19가 유행해도 계속 일을 하는 흑인이 많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슈퍼의 점원(...11페이지에 계속)

# 김여정까지 들먹인 대북베라 '살포기술의 진화'

지난 6월 4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이 담화를 통해 한국 탈북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를 비난했다. 김 부부장은 "나는 원래 못된 짓을 하는 놈보다 그것을 못 본 척하거나 부추기는 놈이 더 밉더라"라면서 "쓰레기들의 광대놀음을 저지시킬 법이라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대북 전단 살포를 한 국내 탈북단체를 맹비난하면서 동시에 청와대를 향해 막말을 퍼부은 것이다. 김 부부장의 담화가 나온 지 4시간여 만에 통일부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 법률안(가칭)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대북 베라는 백해무익한 행위"라고 했다.

국내 탈북 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는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대부분 주도해왔다. 김여정이 담화에서



맹비난한 대북 전단은 지난 5월 31일 자유북한운동연합이 경기도 김포시에서 살포한 것을 언급한 것이다. 박 대표는 6월 4일 언론 인터뷰에서 "지난 4월 우리가 평양으로 보낸 대북전단 1만장등을 실은 드론이 추락해 김정은 정권이 크게 놀랐다"고 주장했다. 다만 국방부와 통일부는 최근 한국에서 북한으로 날아가는

론은 없었다고 했다. 현재 민간 탈북 단체가 주도하고 있는 대북 전단 살포를 비롯해 북한 주민들에게 김정은과 북한의 실상을 알리는 '정보전'의 기술은 점점 발전해왔다. 민간의 대북 전단 살포가 막 시작됐던 2000년대 초반에는 일반 헬륨 풍선을 날리는 것이 전부였다. 하지만 2010년대 이후부터는

풍선에 GPS를 장착해 대북 전단이 어느 지역에서 살포되는지 위치 추적까지 할 수 있게 됐다. 최근에는 특정 지역에서 자동으로 살포되는 기술과 일정량을 순차적으로 살포하는 기술까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풍선에 담을 수 있는 내용물들의 용량도 점점 커졌

▲ 2016년 4월 2일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탈북단체들이 대북 전단을 날리는 모습.

다. 과거에는 종이로 된 '전단'만 보낼 수 있었지만, 이제 탈북민 단체들은 한국 드라마와 영화가 담긴 USB와 SD카드 수 천개를 보낼 수 있다. 초

코피아와 새우깡, 건빵 등 식량을 담아 보낼 때도 있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 5월 31일 대북전단 50만장과 함께 소책자 500권, 1달러 지폐 2000장, SD카드 1000개를 보냈다고 했다.

전단 또한 종이 뿐만 아니라 물에 젖지 않고 잘 찢어지지 않게 코팅한 비닐 전단을 사용하기도 한다. 대형 풍선을 만들기 위해 10미터가 넘는 비닐과 40L짜리 수소가스, 전단 제작 비용과 탈북 단체 회원들의 교통비, 식사비 등을 합하면 대북 전단 살포 한 번에만 1000만원 가까운 비용이 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민주화위원회 허광일 위원장은 "최대한 실용적인 방법으로 북한 주민들에게 전단을 살포하기 위해 탈북 단체들마다 각자의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고 했다.